

우 리 말 소 리 의 듣 기 조 사

이 현 복

머 릿 말

이 조사의 목적은 한국인이 한국말 소리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잘 듣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국민학교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소리말 교육이 잘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맞춤법은 잘 아나 표준 발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바로 학교의 국어 교육이 소리말(음성 언어)보다는 글말(문자 언어)교육에만 힘을 쏟았다는 증거가 된다. 학교의 국어 교육에서 소리말 쪽에 조금이라도 노력을 기울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발음의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이 같은 음성 교육 부재의 풍토에서 자라난 한국인의 한국어 음성 청취 능력을 조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음성학의 학문적인 관심사일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리말 교육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리라 여긴다.

1. 조사 방법. 일정한 자료를 표준 발음으로 읽어 주고 이를 한글로 적되 들리는 대로 쓰도록 지시하였다. 즉, 조사를 받는 이들이 말소리를 듣고, 이를 한글 기호를 이용하여 들리는 대로 정밀하게 적도록 하였다. 특히 "들리는 대로 적으라"는 지시를 몇 차례 반복하였으며, 같은 부분을 세번 내지 네번 들려 주었다. 이렇게 얻은 결과를 원본과 대조 분석하여 청취 능력과 청취 경향을 살펴 보았다.

2. 조사 대상 자. 이 듣기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서울에서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및 현직 교수 등, 모두 9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대상자는 서울의 상명여자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2학년 학생 36명에 한한다.

3. 조사 일시. 1981년 3 - 6월

4. 사용된 자료. 이 조사에 사용된 자료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국민 교육 현장"에서 발췌한 다음의 내용이다. 우선 맞춤법으로 된 원문에 이어 음성표기로 된 원본도 실는다.

(맞춤법 원문) < 국민 교육 현장 >

우리는 민족 증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 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음성표기 원본) < 국민교육커언장 >

우리님 민족 증흥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조상에 빛난 어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에게 처지를 약진 발판으로 삼아, 창조에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에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에게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5. 음성 표기 해설. 앞에 제시한 음성표기는 현행 한글 자모를 음성 기호로 이용하여 맞춤법을 무시하고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이므로, 상당히 실제 말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음소적인 표기이므로 음성적인 정밀 표기는 아니다. 혹시 위에 든 음성 표기를 보고 부분적으로 의아해할 분을 위하여 다음에 몇가지 표기상의 특기 사항을 밝힌다 :

가) "우리님민족중음" 에서 "님" 이 /님/으로 소리나는 것은 그 다음에 끊김이 없는 한 가능한 형태다. 가령 대화체의 말씨에서 "반만", "맛며느리" 는 /바압만/, /맘며느리/ 로 나는 일이 많다.

나) "중음" 역시 실제의 연속된 발음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형태이다. "민족"과 "중음" 사이에 끊김이 없을 때는 어린 소리 /ㅈ/ 발음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우며, /ㅎ/ 도 탈락시킴이 더 자연스럽다.

다) "역사적 싸명" 의 /ㅈ/도 위와 같은 경우이다.

라) "태어 난따" 의 /난/은 혀끝의 치조 폐쇄시간이 있음을 나타내는 데, 표준 발음에서, 특히 강세를 받을 때에 흔히 볼 수 있는 발음 현상이다. "갓다가", "만딸" 에서 알수 있듯이 /가따가/, /마딸/ 보다는 /갓따가/, /만딸/이 표준 발음이다.

마) 긴 모음은 해당 모음을 두번 잇달아 써서 표기했다. 가령 "창조" 는 /차양조/, "교육에" 는 /교오유 게/로 적었다.

바) 그러나 긴 모음 /어:/ 는 역시 /어어/로 표기했을뿐, 긴 /어:/ 가 갖는 표준 발음의 특징적인 소리값 /ə:/ 를 들어내는 표기를 하지는 못했다. 별개의 기호를 쓰거나 별도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 한, 긴 /어:/ 와 짧은 /어/의 소리값 차이를 분명히 들어 내기는 어렵다.

사) "힘과", "학문과" 를 /힘과/, /항몽과/로 발음하는 것 역시 흔히 보는 등화현상이다. 호씨 "익"는 표준 발음에서 흔히 /에/로 나타나, "이에 우라익"에서는 일부러 /익/로 발음한 예이다.

6. 조사 결과. 듣기 조사의 결과를 개인별 항목별로 분류하여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학생	출생-성장지	모음길이	모음음가	자음음가	기 타	계
1	서울-서울	18	7	7	4	36
2	" "	16	2	13	18	49
3	" "	18	6	20	19	63
4	" "	18	8	15	4	45
5	" "	18	2	13	11	44
6	" "	18	6	12	6	42
7	" "	18	8	13	11	50
8	" "	17	3	13	12	45
9	" "	18	10	9	3	40
10	" "	14	7	10	8	39
11	" "	18	4	18	15	55
12	" "	17	3	10	6	36
13	" "	18	6	11	8	43
14	" "	18	2	4	5	29
15	" "	18	5	9	13	45
16	" "	18	4	17	16	55
17	경기-서울	18	7	12	11	48
18	" "	18	4	18	2	42
19	이천-이천	18	3	19	4	44
20	이천-이천	18	6	9	22	55
21	양양-양양	18	3	6	9	36
22	양양-양양	12	9	18	15	54
23	평안-평안	18	4	9	13	44
24	충청-충청	13	7	8	1	29
25	충청-충청	18	6	14	21	59
26	강주-서울	13	3	10	13	39
27	" "	18	9	20	10	57
28	" "	18	3	20	5	46
29	부산-서울	18	4	16	3	41
30	" "	18	6	10	16	50
31	대구-서울	18	7	10	13	48
32	경북-서울	18	7	12	3	40
33	" "	18	5	18	8	49
34	여수-여수	18	4	15	13	50
35	부산-부산	18	7	13	17	55
36	경남-경남	18	14	20	21	73
	계	624	201	471	379	1675
	평균	17.3	5.6	13.1	10.5	46.5

아) "이바지할 때다"에서 "때"는 의도적으로 /떼/로 발음을 하였는데, 이는 모음 /에/와 /애/의 구별을 어느 정도로 의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자) 조사 결과의 도표에서 기탁란은 받침의 과 부족(예: /납따/를 /나따/로, /발판느로/를 /발판느로/ 하는 따위)과 연결.본철에 관련된 내용(예: /정시늘/을 /정신늘/로 적은 따위)을 같이 모아 놓은 것이다.

7. 결과의 분석 앞에서 제시한 듣기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긴 모음 18개를 모두 짧은 모음으로 표기하여 평균 17.3%의 오류를 보인다. 긴 모음을 의식하여 표기한 학생은 불과 2,3명이며, 이들도 5, 6개만을 구별하였다.

2) 모음의 음가. (가) "의"가 /예/로 소리난 곳이 11군 데이므로, /예/로 적혀야 할 총 수가 396(11×36)인데 그중에서 /예/로 바르게 적힌 것이 290(72%)이고 /의/가 94(24%)이었다. (나) "의"가 /이/로 소리난 곳(신의/창의)이 모두 72군 데인데, /이/가 38(53%), /의/가 26(36%)이었다. (다) "의"를 고의적으로 /의/로 발음한 곳(우리의) 36경우중에서 /의/가 27(75%), /예/가 9(25%)이었다. (라) /예/와 /애/의 혼동이 심한데, 특히 /예/를 /애/로 인식하는 일이 아주 많았다. 특히, /애/(때다)를 일부러 /예/로 발음한 곳은 한명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마) 긴 /어:/의 소리값이 6 차례나 나오나, 이를 표기하려는 노력은 216군 데 가운데, 세명의 학생이 5군 데에서 보였을 뿐이다. 예를 들면, /크언장, 츠어지, 기영애/따위가 그 표기의 예이다.

3) 자음의 음가. 자음은 주로 /ㅎ/ 탈락, 예사소리의 된소리되기 및 코사소리 계열의 동화로 나누어 적중률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는 적중률을 표시하고, 그 다음 괄호안의 수자는 적중률의 순위

를 나타낸다:

(가) /ㅎ/ 탈락. /게에바라고/(게발하고) 14%(16)
/명낭아고/(명랑하고) 3%(17)
/만족중응/(만족중흥) 45%(11)

(나) 된소리되기. /중응/ 23%(14), /역싸/ 36%(12)
/싸아명/ 20%(15), /난따/ 66%(6), /협똥/ 81%(3)
/북또돈다/ 28%(13), /빠를/ 78%(4), /약찌네/ 64%(7)
/고옹익과/ 50%(9), /질써/ 50%(9), /압썸/ 47%(10)
/살찌를/ 81%(3), /국까/ 70%(5)

여기서 된소리별 적중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ㅍ/ 48%, /ㅊ/ 62%, /ㅃ/ 78%, /ㅌ/ 60%, /ㄱ/ 60%
(다) 코스소리 되기. /동니뻬/ 87%(2), /황니파고/ 92%(1)
/능닐/ 28%(13), /명낭/ 57%(8)
(라) 코스소리의 조음위치 이동. /공밍/ 0%, /항과/ 0%, /우리눔/ 0%

8. 종합 평가. 위에서 열거한 듣기조사 결과 분석을 돌아보면
서 다음과 같은 점을 음미할 수 있다:

1) 한글의 음성기호로서의 타당성. 한글 자모는 일상 맞춤법의
법칙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평소 한글 맞춤법에 익숙해 있는
대학생들이 갑자기 음성기호로 사용하는 때에는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음성기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겠으나, 국 제음성기호 같은 음성기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별
도의 훈련이 필요하게 되며, 이같은 훈련을 쌓은 사람은 이미 이상적인
실험 대상은 아닌 것이다. 더구나 한글은 모아쓰기를 하므로, 들리는
대로 쓰라는 지시를 따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가령 /약찌네/ 나
/정시닐/ 을 /약썸네/ 와 /정신닐/ 토 적는 따위는 평소 철자법의 영
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모아쓰는 한글 철자법의 영향으로 한 음절
의 종성은 항상 종성으로 적으려는 무의식적인 습관이 들어나고 있다. 그

르므로, 어느 단계에서는 순수한 음성기호나 또는 한글의 풀어쓰기를 통한 듣기조사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지시의 정도. 조사에 들어가기전에 "들리는 대로 적으라"는 지시를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써 모음의 길이까지도 긴 것은 길게 표시해야 한다는 의도를 전달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만일 "긴 모음은 길게 적으라"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였더라면 훨씬 많은 학생이 긴 표시를 하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결과만으로도 모음의 장단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음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차이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적으로, 위에 말한 몇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번 듣기조사는 대학생들의 한국어 말소리 듣는 능력이 부족함을 들어냈으며 이는 바로 소리말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이 듣기조사는 상명여자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신현숙교수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자료의 정리와 통계는 서울대학 언어학과의 김주원, 정제문, 김민자 조교 및 김정실씨가 맡았다. 이분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 조사 내용은 부분적으로 지난 6월 27일에 전남 광주에서 열린 한글학회 광주지회주최의 연구발표회에서 소개된바 있음을 밝혀 둔다.>>

<참고서목>

이현복. "파열음의 청취 판단에 관한 연구". 논외허응 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과학사, 197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교수>